'흥보가' 캐릭터 구성.

'흥보가' 메인 포스터.

창단 30주년 역사 오롯이 무대에

시립창극단 오늘부터 이틀간 정기공연 '흥보가'
전통 살리고 현대적 감각 입히고…기대감 고조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26일과 27일 제54회 정기공연 창극 '흥보가'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 올린다.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는 1989년 광주시립국극단 창단 공연 '놀보전'을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창단 30주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흥보가'는 사설이 우화적이기 때문에 우스운 대목이 많다. 소리 또한 가벼운 재담이 많아 즐겁게 들을 수 있으며 해학과 풍자를 함께 담고 있다.

그동안 제1회(1990), 제12회(1996), 제48회(2015) 등 5회 이상의 정기공연은 물론 단막극 등의 소규모 공연에서도 꾸준히 선보여온 광주시립창극단의 대표 공연 레퍼토리라 할 수 있다.

공연은 총 2막으로 구성된다. 1막은 흥보가 놀보에게 쫓겨나는 대목 '흥보가 기가 막혀'를 시작으로 1막 하이라이트인 흥보 박타는 대목 '시리렁 실건 당긔어라'까지 선보인다. 흥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받은 박에서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2막은 샘이 난 놀보의 '아이구 배 아파라' 대목으로 시작한다.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고 박씨를 심지만 금은보화는커녕 혼쭐이 나는 놀부의 이야기를 담은 '폭망놀보'까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번 흥보가는 기존의 전통을 살리면서 현대적 관점을 반영해 작품화했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외국곡에 맞춰 춤을 추는 대목과 빛고을 광주를 빗대어 만든 랩소디 등은 신선함이 더해진 현대적인 흥보가임을 확인시켜 준다.

총감독을 맡은 유영애 예술감독을 비롯한 화려한 제작진의 참여 역시 기대감을 높인다.

김홍승 연출가의 연출 및 각색을 바탕으로 작창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인 신영희 명창, 안무 채향순, 음악감독 한선하, 작곡 및 지휘에는 이용탁이 참여한다.

특히 유영애(구음), 정선심·방윤수(도창), 박운종(흥보), 장영한(놀보), 이복순(흥보처), 김정미(놀보처)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총출동해 변화무쌍한 연기와 감동적인 소리를 선보인다.

소리, 한국무용, 기악, 타악 등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음은 물론, 극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무대 연출과 효과, 화려한 의상은 그 매력을 더해준다.

유영애 예술감독은 "시립창극단 30년의 모든 역량을 쏟은 완성도 높은 공연이다"며 "익히 알려진 고전 작품이지만 우리 시대의 이야기에 해학과 풍자를 더 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장 로비에는 극에서 사용하는 의상·소품체험과 포토존을 운영해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오후 7시 30분, 27일 오후 3시. 티켓 가격 1~2만 원.

문의 062-526-0363. /이보람 기자

별별 손기술 공방 참가자 모집

서구생활문화센터, 가죽·냅킨·매듭공예 등

광주 서구생활문화센터에서는 공예 또는 공방 창업에 관심 있는 20~36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별 손기술 공방' 참가자를 모집한다.

별별 손기술 공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죽공예, 냅킨공예, 매듭공예(마크라메)의 3가지 수공예 강좌가 무료로 진행된다. 가죽공예는 키링, 카드지갑, 반지갑, 삼각필통 만들기, 냅킨공예는 냄비 받침대, 화장지 케이스, 서랍장을 만들며 매듭 공예는 플랜트 행거, 화분 주머니, 티코스터, 플라워 샹들리에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만들 예정이다.

서구생활문화센터는 별별 손기술 공방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청년층이 지역민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운영되며 문의 및 접수는 062-654-4323으로 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개성 있는 아트 장난감 다 모였다

광주신세계갤러리 가정의 달 '토이 스토리' 전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 '토이 스토리: This is NOT a TOY' 전을 개최한다.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안광노·이현희, 왕지원, 윤정미, 이사라, 이지수, 홍석민 등 작가 10명이 개성있는 장난감을 주제로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풀어간다. 평면 회화와 사진에서부터 업사이클링한 정크 아트(junk art)와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작가들이 손수 제작한 아트 토이(art toy)까지 장난감을 주제로 선보이지만 작가들의 표현 방식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만큼 다채롭다.

아트 토이를 만드는 작가들은 현대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분홍색을 특히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파란색을 선호하는 남자아이를 그들이 소유한 물건들과 함께 촬영한 윤정미의 사진 '핑크&블루 프로젝트' 시리즈는 아이의 성별에 따른 문화적 선호와 취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작가의 가족을 움직이는 기계로 만드는 왕지원은 첨단 기술에 의해 발전하는 현대사회와 함께 변화하는 미래의 인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어린 아들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모습 속에 역설적으로 담고 있다.

안광노 작 '인어 아재'

세밀한 스크래칭으로 동물 인형을 회화와 입체로 표현한 이사라의 작품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잊혀진 따스한 동심의 세계를 떠올리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폐전자제품, 버려진 장난감을 재활용하여 로봇 작품으로 업사이클링한 포리(Fori Sim)는 버려진 생활 쓰레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켜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환경문제를 환기시키며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연수 기자

박상용과 떠나는 역사여행

〈47〉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꾸며지지 않은 그대로의 독립운동 역사공간

삼일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도처에서 그와 관련된 기념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주년 이벤트로 여행이라면 그 첫번째는 이전 지면에서 소개했듯 천안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엔 우리 5천년 역사부터 시작해 일제강점기의 거의 모든 독립운동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옮겨온 것들이고 만들어진 것이지요. 옮겨지지 않고 꾸며지지 않은 당시 그대로의 독립운동 역사공간은 어디에 있을까? 저는 서대문형무소를 추천합니다. 현재의 공식명칭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서대문형무소 전경(왼쪽)과 내부 모습.

1908년 도성밖 서대문에 지은 경성감옥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관
왕산 허위·유관순·강의규 의사 등 순국

조선시대 한양. 임금님이 머무는 궁궐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도읍지 성인 도성이 되었고, 동서남북에 문을 내어 출입했습니다. 4대문을 나서면 도성 밖, 시외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제 병합한 공식년도는 1910년 경술년이지만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하나씩 우리의 권리를 빼앗았고, 1895년 을미년의 왕비시해사건(을미사변)이나 1905년 을사년 외교권 박탈(을사늑약) 등에서 보듯 경술년 이전 이미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먹이감이 되었지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뀐 이름으로 나라가 망하기 2년 전인 1908년 대한제국의 외교와 정치 군사를 맡았던 일제의 한국통감부에 의해 도성 밖인 서대문 앞에 감옥이 지어집니다. 당시 도시 이름을 따 경성감옥이라 이름합니다.

그 한 해 전인 1907년 군대가 해산됩니다. 직업 군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다른 직업을 찾든가 군인 직업을 되살려 대세 일본에 고용되든가 아니면 군대해산에 대한 항쟁을 하겠지요. 항쟁세력들은 급료를 받지 않는 군인인 의병이 됩니다. 군대가 해산되었는데 군대 활동을 한다? 국가전복 세력으로 잡혀 갇힌 곳이 새로 지은 경성감옥입니다. 기존 시설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필요에 의해 세워진 감옥이지요.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려 군대마저 해산하던 그 이듬해 수가 늘어난 의병들은 조직적으로 서울진공작전을 폅니다. 주축이었던 의병장 중 왕산 허위 선생을 그려봅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엔 그 분의 얼굴과 활동이 소개되어 있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안보입니다.

조선의 신하였던 그는 "질 줄 안다. 그런데 왜놈이랑 한나라에서 못살겠는걸 어떡하느냐?"며 지는 싸움인 줄 알면서도, 목숨을 잃을 줄 알면서도 항쟁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 첫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이름은 서울 청량리에서 동대문까지 도로 이름인 '왕산로'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엔 나라 잃고 항쟁했던 무수한 무명인들도 함께 들어 있겠지요.

독립운동 이야기를 하면 안중근도 있고 윤봉길도 있고 김구도 있으며, 서대문에서 순국한 유관순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추념하는 분들이지요. 저는 서대문형무소에 순국하신 독립투사 한 분을 더 불러보고 갑니다.

강의규 의사. 1920년 새로 임명되어 들어오는 일본 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졌던 백발의 노인. 일제강점후 만주로 이동해 젊은이들을 계몽하는 교육사업에 종사하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는 것에 맞춰 폭탄을 반입해 의거를 일으키고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 당시 65세. 백 년 전의 65세라면 지금의 80세 가량의 노인이었겠지요.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음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당연시하고 영원할 것이라며 지식인들마저 민족개조론을 말하던, 저항이 오히려 죄가 되는 모순의 시대에 백발 노인의 의거는 노인도 그러할진대 청년들이 식민지 조국에 안주하여 사는 것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지요.

경성감옥은 이후 마포에 더 큰 감옥이 지어져 서대문형무소로 개명되고, 일본이 물러난 후에도 교도소로 이용되다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갑니다.

당시 옥사 건물 15개동 중 역사성을 고려해 5개 옥사와 나병옥사를 보존해 사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몇 차례 재단장을 거쳐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80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들어서면 처음 맞이하는 문구입니다. 일제로부터 되찾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말할 수 있음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수많은 독립지사들과 민주투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순국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체험학습 동행(historytour.co.kr) 대표